

베트남의 주변국 인식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채 수 홍**

I. 문제제기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n Community)로 상징되는 역내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국가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면서 세계경제 질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인원 2006: 9-24). 그 결과 1997년부터 동북아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상회담(ASEAN+3)이 정례화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1-9).

본 연구는 베트남을 사례로 개별 역내국가가 주변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 이미지, 역사인식 등이 이와 같은 지역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베트남인의 주변국가에 대한 시각과 역사인식이 베트남의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유추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연구비(KRF-2005-079-BS0031)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논문에 대하여 날카롭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schae@chonbuk.ac.kr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지역협력과정에서 취하는 태도와 외교적 결정은 단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타국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미디어가 조정하는 타국에 관한 공적 담론 등도 외교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은 물론이고 최근의 교역관계, 이주노동, 국제결혼, 한류 등에 의해 형성된 상호 이미지와 시각이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분명하다. 실제로 각국이 타국과 연계된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는 많다(예를 들어, Kung 1999; Soh 2003; Peteet 2005).

하지만 추측과 유추를 넘어서서,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타국에 대한 이미지에 기초한 “정치적 심리(political psychology)”(Sears, Huddy, Jervis 2003; Soh 2003: 148에서 재인용)가 외교적 결정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너무 많은 변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인류학적 현지연구를 토대로 현지인의 타국에 대한 시각과 담론의 내용과 근거를 분석한 뒤 이를 통하여 지역협력에 집단적 심리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해석을 시도해본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지역협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2006년 2월에 2주 그리고 2007년 1월에 한 달 동안 하노이와 호치민의 동아시아 전문가, 외교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동아시아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한 베트남 서적과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현지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첫째, 베트남의 학자, 외교관,

일반인이 인근 동아시아국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과 이의 해석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이런 역사적 기억을 토대로 베트남인이 인근 동아시아국가와 국민성을 어떤 전형(stereotype)으로 만들어 “이름붙이고(labeling), 낙인을 찍는가(stigmatization)”(Hall 1991)를 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의 정치가 베트남의 외교적 결정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지연구의 과정에서 세 번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일당(一黨)이 지배하는 베트남 정치제도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역사인식이나 여론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곤 했다. 타 국가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예를 들어, 역사왜곡 항의시위 같은) 사건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캄란(Cam Ranh) 해군 기지의 조차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베트남의 외교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집단은 군부 밖에 없다고 귀뽀하는 학자도 있었다.

이에 더하여, 어떤 외교관은 미국과 사우디의 우호적 관계를 예로 들며 국민의 의식과 외교적 결정은 상대적 독립성이 있다고 짧잠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교관은 필자의 우문(愚問)을 외면하고 차라리 베트남 정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를 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외교 관계가 국민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을 뒷받침할 타당한 사례를 단기간에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와 염두에 두고 논의수준을 낮추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물론 일반인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베트남인 외교관과 동아시아지역전문가의

진술을 토대로 베트남인이 인근 동아시아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전형적 인식, 친소관계에 대한 감정 등을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인이 이러한 이미지, 인식, 감정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본다.¹⁾ 셋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베트남인의 역사 해석이 현재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조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시도한다. 넷째, 베트남인이 가지고 있는 인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차별적 혹은 위계적 인식이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노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시각과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II. 전후 베트남의 외교정책변화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필자가 현지연구 기간에 만난 고위 외교관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후 베트남을 20년 동안 저발전의 상태로 만든 외교적 실책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베트남은 구소련을 제외한 주변국 강대국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했다(Birgerson 1997 참조). 미국과는 전쟁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중국과는 국경문제나 인도차이나의 패권을 놓고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켰다. 둘째, 이러한 대립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베트남의 고립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캄보디아로의 군대파견이다. 군부 내의 격렬한

1) 이하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물론 역사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이 아니다. 필자가 만난 학자, 외교관, 일반인이 믿고 있는 공통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 한 것이다. 이하의 발표문에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은 필자가 면접한 베트남 외교관, 지역 전문가, 일반인이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크메르루지를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체스게임에서 줄을 잘못 이동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형국(don con 'tot' den duong cung)”이 되었다.

레주언(Le Duan)의 정책에서부터 승계되어 온 이러한 외교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이머이(Doi Moi, 혁신)정책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도이머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만을 가져 온 것이 아니다. 도이머이는 실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문화적 혁신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보여 준 가시적인 성과가 1989년 캄보디아에 주둔하던 베트남 군대의 철수였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Amer 1999).

베트남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정판은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이다. 아세안의 창립국가들은 도이머이가 시작된 80년대 중반부터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베트남에게 아세안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을 수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Nguyen Vu Tung 2002).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의 몰락으로 기델 둔덕을 잃어버린 베트남은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면서 국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아세안 가입을 디딤돌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교 다변화(da phuong hoa)정책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1991년 제 7차 당 대회 이후, 아시아-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과 평화유지를 달성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Nguyen Hoang Giap 2006: 16). 이와

같이 베트남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다변화에 힘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1994년 미국의 통상봉쇄(embargo)의 해체에 따라 정치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다(Nguyen Hoang Giap 2006: 17). 베트남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특히 2001년 9차 (공산)당 대회 이후에는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외교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²⁾

이처럼 냉전이후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도이머이를 돌파구로, 아세안 가입을 전환점으로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Looking East)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기존 외교정책의 초점을 두 가지 점에서 혁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인도차이나라는 소지역(sub-region)에 대한 패권주의를 고수하지 않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함으로써 지역 내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일부 학자들은 8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철수하면서부터 이미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Ralf 2004).³⁾ 둘째, 베트남은 이념과 안보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리와 경제에 무게를 둔 외교를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실리외교가 베트남 경제를 급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1998: 189-190 참조).

베트남 외교정책의 혁신적 전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인도차이나를 둘러싸고 소지역을 형성하고 있

2) 베트남 9차 당 대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의미 분석은 이한우의 2002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3) 랄프(Ralf 2004)는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의 여파로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주장할 수 있는 동남아국가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는 주변국이다. 소위 ‘광역의 메콩 소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의 구성원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중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가고 있다(Dosch and Oliver 2005). 베트남과 이들 4개국은 역사적으로 맺어왔던 친소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정치경제적 경쟁과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고 있다.

식민주의 시대 이전만 해도 베트남의 대외관계란 이들 4개국과의 관계를 의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베트남인이 타국과 타국민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정형화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도 이들 4개국 중심이다.⁴⁾ 이하에서는 베트남인이 이들 4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기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재를 제공해 온 역사적 사건과 맥락은 무엇이며, 근자의 베트남 외교정책의 다변화가 이들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Ⅲ.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나라: 라오스

베트남인은 대부분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나라를 하나만 선택 하려면 라오스를 지목한다. “항상 웃고 태평스러운(luc nao cung cuoi binh thanh)” 성격을 가진 민족이라고 믿는다. 특히 캄보디아의 국민 성과 대조시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인은

4) 물론 베트남인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을 기억하는 전형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민성 담론도 존재한다. 한국인은 베트남전쟁, 노동탄압, 한류와 연관 지어 해석하고 일본인은 제국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절바른 행동 등으로 기억한다. 인도네시아인은 호치민과 수하르토의 친분이나 회교도로 기억하고 싱가포르를 말하면 화교와 경제 발전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으며 베트남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를 증명하듯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나 담론을 찾기 쉽지 않다.

양국 관계를 설명하면서 “베트남이 라오스를 일방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오스에 정통한 베트남 학자의 표현대로 “착하지만 못사는 동생 돕기(*guip do nguoi em hien nhung ngheo*)”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라오스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식량자립을 돕기 위한 물적·기술적 지원, 전기와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장기적인 교육투자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Nguyen Sy Tuan 2003: 11-13). 베트남은 산업, 안보,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thiet thou*, unbalanced loss)’을 감수하면서 라오스를 도우면서 “특별한 관계(*quan he dac biet*)”(Nguyen Hao Hung 2003; Pham Duc Thanh 2003)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이 라오스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도이머이 이전만 해도 양국이 모두 가난했고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원조로 경제를 겨우 꾸렸기 때문이다. 개방초기까지도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거의 없었고 발전도 미미했다(Vu Cong Quy 2003: 20). 이 시기에는 라오스의 천연자원,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 외국자본을 결합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는 경제규모가 훨씬 큰 베트남이 라오스를 앞서가며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Nguyen Sy Tuan 2003). 라오스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이 자본, 기술, 시장을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경제협력체제가 이때부터 구축되었다.

베트남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지원이 최근의 현상인데 비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가 15세기경 베트남에 빼앗긴 찐닌(*Tranh Ninh*)지역의 탈환을 꾀한 봉건시대 말기(18-19세기)에는 양국이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지만(최병욱 2006: 242-247), 적어도 근대 이후 양국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이 이처럼 의형제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 데는 양국이 공히 경계하는 이웃인 태국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라오스는 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의 (때론 중국의) 힘을 수시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베트남도 라오스를 앞세워 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최병욱 2006: 245).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 일본,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혈맹을 맺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한 역사적 경험도 양국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이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경험 이외에도 몇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라오스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도 베트남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첫째, 라오스가 베트남이 추구하는 인도차이나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모두 끼고 중간지대에 위치한 라오스는 베트남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과 이 지역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라오스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의리나 형제애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과 정치적 순종에 대한 대가였다.

둘째, 베트남과 라오스는 민족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다. 특히 라오스에는 베트남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포(viet kieu, 비엠티)가 소수이다. 쩌엥선(Truong Son) 산맥으로 막혀있는 라오스에 베트남인이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의 비엠티는 프랑스가 고무농장, 커피농장, 도로건설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베트남 광산노동자를 이주시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식민투쟁을 하던 혁명가나 75년 이후 파견된 전문 인력의 일부

가 남기도 했지만 라오스의 비엠티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라오족이 이들을 차별하거나 박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셋째, 베트남과 라오스는 베트남전쟁 이후 이 지역에 분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경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다. 양국은 1977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협정에 합의하고 1990년에는 국경운영규정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Amer 1995: 306; Amer and Nguyen Hong Thao 2005: 27). 양국은 3자가 개입되기 십상인 바다나 강을 둘러싼 국경분쟁에도 휘말려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과 라오스의 우호적 관계가 유지된 것은 양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지리적, 민족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라오스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북부를 중심으로 라오스에 많은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라오스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비엔티안의 시장은 값싼 중국산 물건과 화교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이 메콩강을 공동 개발하여 물과 전기를 확충하겠다고면서 라오스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트남과 라오스의 형제애에 이 상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베트남의 다양한 지원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라오스와 태국의 긴장관계 등은 양국이 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라오스에 대한 중국과 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 베트남이 라오스로부터 현재와 같은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지역의 외교적 환경 속에서 라오스가 베트남과의 유대감을 이유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형제애”의 정체감을 강조하는 베트남인의 시각에 “동생”으로 취급받는 라오가 온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가깝고 믿을 수 있는(khong the tin tuong va gan gui duoc)” 존재로 믿어왔던 라오스가 중국이나 태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베트남인의 라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

IV. 가깝지만 믿을 수 없는 나라: 캄보디아

베트남인에게 캄보디아는 항상 라오스와 비교되는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깝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한다. 많은 베트남인은 캄보디아인의 국민성도 평화로운 라오와는 대조적으로 성질이 급하고, 강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믿는다. 타인을 “경멸하는(coi khinh)” 경향이 있고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mat long tin)”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베트남의 지식인들에게 캄보디아는 “29일은 믿을 수 있지만 하루는 믿을 수 없는 나라(la mot dat nuoc co the tin duoc 9 ngay nhung ma khong the tin 1 ngay con lai)”라는 말로 요약된다. “입술이 크고 곱슬머리이며(toc quan moi day)”, 얼굴은 흑라오(black Lao)에 가깝다고 형상화되는 캄보디아인은 베트남인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다.

넓게는 캄보디아국민 전체, 좁게는 캄보디아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크메르족에 대한 베트남인의 부정적 인식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베트남 남부의 영유권 분쟁이다. 사이공과 메콩을 포함한 현 베트남 남부는 약 300년 전인 17세기말에 캄보디아의 봉건왕조로부터 베트남의 봉건왕조로 주인이 바

편 곳이다. 이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두고 양국의 시각은 첨예하게 다르다. 베트남 남부를 두고 베트남은 캄보디아가 도움을 준 대가로 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찬탈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는 양쪽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은 태국의 침입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곳을 조금씩 양도받았다. 힘이 약했던 캄보디아의 봉건왕조는 17세기에 남동쪽으로는 베트남에게 북서쪽으로는 태국에게 외부의 침입을 물리쳐주는 대가로 거의 모든 영토를 바쳐야했다(최병욱 2006: 217). 다른 한편으로,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찬탈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저항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캄보디아 전문가들은 현 베트남 남부의 원주민이 크메르나 참족이 아니고 폴리네시아·말레이 계통이었다는 고고학적 학설까지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변하는 영토권에 대해 캄보디아가 역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캄보디아인은 베트남 남부의 역사가 베트남이 항상 자신의 영토를 침탈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사이에는 역사해석을 둘러싸고 “승리자/피해자(victor/victim)의 심리적 틀”(Soh 2003)이 작동하고 있다. 베트남인의 캄보디아인에 대한 경멸감은 승리자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게 된 계기도 있다.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많은 비엠티가 살해당한 사건이 그것이다. 특히 폴포트(Pol Pot) 정권아래서 잔인하게 학살당한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상기하며 베트남인은 항상 캄보디아의 정치적 불안정과 캄보디아인의 잔학성을 걱정한다. 베트남인은 친베트남 정권으로 알려진 훈센과 인민당(CCP)정권마저도 다른 소수민족의 난민은 정착시키면서 비엠티는 가능한 한 수용하지 않으려한다고 주장한다. 약 백만 명에 육박하는 캄보디아 비엠티

의 존재는 양국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역사적 반목은 캄보디아에 투자한 베트남의 공기업이 캄보디아 사기업의 신용문제로 손실을 입거나 국경에서 일상적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정형화된 국민성·민족성 담론으로 표출되곤 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학자나 외교관들은 양국의 관계가 “좋다가 나빠다가(thang tram)”하는 부침이 심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 실제로 베트남에게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가깝고 우호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메콩유역 국경의 양쪽에 크메르족이 많을 뿐 아니라 국경을 통한 왕래가 자유로워 민간수준의 교류와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 국민이 베트남의 공산품과 캄보디아의 농산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도 비싸지 않은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양 국민의 교류는 활발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을 고려하더라도, 캄보디아가 식민시대 이래 베트남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식민지 저항운동에 동참했고, 해방 후 시아누크 왕이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1979년 이후 친베트남 정권이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1970년대 초 론놀의 친미정부가 북베트남과 갈등을 빚었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포트의 친중 정권이 베트남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을 뿐이다.

문제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듯 캄보디아는 이웃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벌어지는 앞마당이다. 캄보디아의 권력향배에 따라 언제든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의 영향력이 부침을 거듭할 수 있다. 최근 훈센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친베트남계로 알려진 훈센이 지금은 친중파로도 분류되

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친미파로 분류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은 캄보디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계 캄보디아인이 중심이 되어 문화와 교육에 집중 투자하며 친중국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역사적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베트남과 연합하여 태국의 인도차이나 패권을 견제했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베트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외교관들은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라오스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라오스와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거의 없는 반면 캄보디아와는 역사문제, 민족문제, 국경문제가 얽히면서 항상 갈등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태국만(the Gulf of Thailand)에 위치한 양국의 국경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양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국경을 확정하고자 시도했지만 폴포트 정권과 베트남 정권의 불화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훈센의 인민당이 권력을 잡고 있던 1985년에 협정을 맺었지만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부의 권력다툼이 복잡해지고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경표식 322개 중 72개를 완료한 상태에서 베트남은 소위 탈베그(Thalweg)원칙을 캄보디아는 식민시대의 경계선을 존중하자는 의견차를 보이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Amer and Ngueyn Hoang Thao 2005: 29-30).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태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베트남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태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베트남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캄보디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나 외교관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베트남인은 캄보디아를 여전히 ‘가깝지만 믿을 수 없는(de gan nhung ma khong the tin duoc)’ 이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가깝지만 경쟁심이 느껴지는 나라: 태국

태국에 대한 베트남인의 이미지는 양분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경험한 세대는 태국과 베트남의 오랜 긴장과 경쟁 관계를 알고 있다.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태국을 잘 사는 이웃으로 간주하고 관광, 스포츠를 통해 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태국을 싫어하는 베트남인이 많지 않은 반면에 태국인이 베트남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믿는 베트남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측은 태국인이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인을 “가장 비태국적(Un-Thainess)인 성격을 가진 최악의 타자(the worst otherness)”(Winichakul 1994: 6)로 규정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베트남인과 태국인의 서로에 대한 선호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트남인이 양국을 동남아시아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로 인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승리자(victor)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달리 태국에게는 경쟁심리를 느낀다. 나이든 세대의 경우 태국인이 “울분이 맺힌(am uc)”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베트남인과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다. 젊은 세

대의 경우에도 격년으로 열리는 동남-아시안게임의 성적을 기억하면서 축구경기에서 가장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태국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태국과의 축구 경기는 베트남 축구팬의 가장 큰 이벤트이다.

베트남인의 태국인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양국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해 온 역사적 맥락과 잘 어울린다. 태국과 베트남이 교류를 시작한 17세기 이래 줄곧 지속되어 온 양국의 경쟁관계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양국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왔다. 둘째, 양국은 상대의 영토를 직접 침략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위치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대상으로 싸웠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관계는 적대적이기 보다 경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이 항상 경쟁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태국의 짜크리(Cha Kri) 왕조의 라마1세(Rama I)와 베트남 응우옌(Nguyen) 왕조의 자롱(Gia Long)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양국의 봉건왕조는 내란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를 돕거나 피신처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다.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프리디(Pridi Phanomyong) 외무부 장관이 호치민과 친분을 과시하였고 일부 수상이 베트남에 호의적인 정책을 단기간 펼치기도 했다(Trinh Dien Thin 2005)⁵⁾.

하지만 양국이 호혜적인 교류를 하거나 선린관계를 유지한 것은 예외적이었다. 양국은 왕가의 교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경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변 봉건왕국을 대상으로 영토를

5) 필자는 현지조사 기간에 30년 이상 태국의 역사와 태국의 베트남 교포(Viet kieu)를 연구해 온 Dr. Thin의 집을 방문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태국의 역사와 그녀의 저서 'Viet-kieu in Thailand in Thai-Vietnamese relationship' (Institute of Asian Studies of Chulalongkorn University, 2005)에 관하여 강의를 들었다. 여기에 서술된 역사는 베트남 내 다른 태국전문가의 해석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그녀의 해석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확장하려는 양국의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4세기 이래 앙코르 제국이 종교적 건축물 건설을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 소승불교의 확산, 관계시설의 부실한 유지”(최병욱 2006: 208-209)등으로 인하여 서서히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태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이후 서서히 베트남이 메콩유역으로 진출을 피하면서 양국의 경쟁관계는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중간지대에 대한 영토확장 경쟁은 18-19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프랑스가 개입하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독립 이후에도, 영토쟁탈전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경쟁은 항상 중간지대의 패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독립이후의 양국(특히 태국과 북베트남)의 경쟁은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소수민족을 매개로 한 간접대립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민족문제가 주요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비엠티는 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였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도움으로 근대화를 일찍이 진행해 온 태국은 서구 열강의 요구가 있거나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면 비엠티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1946년 라오스에 있던 7만여 명의 비엠티를 받아들여 캠프에서 관리하기도 했으며, 1960년에는 미국의 동의아래 4만여 명의 비엠티를 남베트남으로 귀환시키기도 했다. 또한 이들을 이용하여 때론 베트남의 식민지해방투쟁을 지원하도록 하고 때론 북베트남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앞장서게 만들기도 했다(Trinh Dien Thin 2005).

이처럼 소지역 패권과 민족문제를 이슈로 벌어진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된 것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 이후이다. 베트남이 중간지대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포기한 것은 태국으로서는 크게 평가할 만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지속적 경

제협력, 연례 내각회의, 비자면제까지 양국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만을 놓고 보면, 이제 양국은 오직 경제성장을 놓고만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하지만 양국의 국경문제와 민족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태국만(泰國灣)을 놓고 양국은 여전히 영토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국 내 7만여 비엠티의 시민권과 차별 문제에 대한 감정 싸움도 심각하다(Amer and Nguyen Hong Thao 2005: 29; Nguyen Hong Quang 2003). 라오스와 태국의 이산(Isan) 지역⁶⁾에 관한 영토 분쟁에도 베트남과 태국은 견해차가 심각하다. 이산은 응우옌 앙(Nguyen Anh)왕조 뚜득(Tu Duc)왕의 가톨릭 박해를 피해 비엠티가 대규모 이주한 지역이다. 1893년까지 태국의 영토에 속했고, 태국과 라오스의 합의에 의해 라오스 땅이 되었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태국에 귀속시킨 곳이다. 태국과 라오스의 영토분쟁에 베트남의 민족문제가 얽혀있는 이 지역에 대해 베트남과 태국의 시각차는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양국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태국이 베트남보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다(Chambers 2005 참조). 베트남의 외교관들은 태국이 아세안에서 중국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태국과 중국의 밀월은 지역 내에서 베트남의 정치적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 이와 더불어, 태국이 캄보디아와도 급속한 관계 개선을 이루며 베트남을 견제할 힘을 갖추고 있는 점도 베트남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캄보디아가 태국과 쌍을 이루고, 태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라오스가 전통적 우방 베트남과 쌍을 이루어 이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6) 태국의 동북부를 지칭한다. 이곳과 태국 중앙정부의 경제적, 문화적 갈등의 성격에 관해서는 조홍국(2004)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양국이 외교 다변화를 외치면서 구축하고 있는 다자적 구도의 심층에는 양국의 뿌리 깊은 경쟁과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인이 태국인을 대상으로 느끼는 경쟁심리는 깊은 역사적·지정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VI. 가깝고 두려운 나라: 중국

베트남인에게 중국은 두려운 나라이다. 중국인이 항상 “잘난 체하고 통제하려는 (chanh va kien che thick gay anh huong)”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활한(tham nho)”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베트남인은 캄보디아인 못지않게 중국인을 꺼린다.

베트남인이 이처럼 담론을 통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만들면서 중국인을 싫어하는 데는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필자가 만난 베트남 외교관의 말대로 “베트남의 부정적 역사 속에는 항상 중국(trong cat mat phu dinh cua lich su Viet Nam deu co Trung Quoc)”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성립부터 10세기까지 1천년의 지배를 시작으로 양국의 봉건왕조 사이에만 크고 작은 전쟁이 12번이나 벌어졌다. 이 가운데는 중국의 명나라와 베트남의 ‘레 왕조의 건설자 레 라이 그룹’이 벌인 20년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⁷⁾

비교적 근자에 벌어진 양국의 무력충돌도 있다. 베트남의 1978년 캄보디아 점령을 비난해 온 중국은 윈난(雲南)성과 광시(廣西)성에 위치한 국경의 잦은 충돌을 구실삼아 1979년 2월 베트남을 침공한다. 이 전쟁으로 베트남 북부의 여섯 개 성이 쑥대밭이 되었다. 88년

7) 베트남인은 이 시기를 ‘박 투역(bac thuoc, chinese domination)’이라고 부른다.

8)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단 2번 패배했다. 하지만 패전은 곧 식민지배로 귀결되었다. 한번은 중국 한 무제 이래 일천년 지배를, 다른 한번은 명나라의 30년 지배를 낳았다.

1월에는 ‘스프레틀리 군도(Spratly Islands)’에서 무력충돌을 벌이다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정이 쌓여 온 까닭에 오랜 쟁점이었던 캄보디아 철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양국 간에는 실질적인 관계정상화(binh thuong hoa)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양국은 1991년 공식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지만 베트남 내부, 특히 군부의 반발이 커서 1994년까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러던 양국의 관계를 급속하게 발전시킨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이다. 아세안의 지분을 확보한 베트남을 중국이 마냥 등한시할 수는 없었다(Simon 1994). 또 하나는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1995년 정상화된 것이다.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렛대의 한 축에 올려놓자 양국관계는 급진전할 수밖에 없었다(Stanley 1995: 153).

베트남과 중국은 1995년 이후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국 국민과 정치권이 상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감을 줄이는 것이었다. 필자가 면담한 베트남의 중국전공학자에 의하면 베트남의 지도부가 중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선호도 발표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설문결과 중국의 젊은이가 좋아하는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이었고 싫어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베트남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인과 중국인의 서로에 대한 선호도가 향상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캄보디아의 아세안가입이 완료된 1999년 이후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여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1991년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량이 2005년에는 무려 80억 달러까지 양적으로 성장했다. 질적으로도, 중국의 원조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투자

위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90년대 초 1-2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투자는 매년 수백 개에 달한다(Tran Khanh 2005 참조).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관광, 교육, 문화부문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2005년 현재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이고 베트남인의 중국관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대학에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한국처럼 베트남에서도 중국 유학열풍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라오 까이(Lao Cai) 지방에서는 매년 1백 명의 학생을 윈난성의 홍하(Hong Ha)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연 2천 달러의 저렴한 돈이면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유용한 중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인기로 약 7천명의 베트남 학생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이다.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양국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양국의 국경문제는 여전히 휴화산으로 남아 있다. 1999년 말부터 육지의 국경선에 관하여 그리고 2000년 통킹만(the Gulf of Tonkin)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남아 있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프레틀리(Spratly, Truong Sa)군도와 파라셀(Paracel, Hoang Sa)군도에 관한 분쟁이다. 파라셀 군도가 1974년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의 감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면, 스프레틀리 군도는 매장된 석유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곳이다(Amer and Nguyen Hong Thao 2005: 30-31; Denoon and Steven

1997). 또한 육상의 국경도 경계선만 정해졌지 잦은 충돌이 과거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군사력이 막강한 양국이 국경문제나 국경에서의 잦은 마찰을 계기로 충돌하며 양국관계를 급속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둘째, 양국의 무역 분쟁이 심각하다. 양국의 무역량은 증가했지만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베트남 투자가 소규모 단기 자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베트남에 대규모 설비를 들여와 장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베트남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값싼 상품이 베트남 시장에 넘쳐나면서 베트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상품들이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양국 간에는 무역 분쟁과 국경문제가 얽히면서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베트남은 거대권력 중국이 메콩유역의 국가를 지배해 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태국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중국의 지배력이 의미하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아는 베트남으로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양국의 부정적 역사가 반복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베트남인에게 “여전히 가깝고 더욱 두려운(cang gan cang thay dang so)”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VII. 결어: 베트남과 동아시아공동체

베트남인이 이웃 4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베트남이 상대국가와 맺어 온 역사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베트남인의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민족문제, 영토(국경)문제, 지역패권 등을 놓고 역사 속에서 상대국가와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충돌해 왔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설은 베트남인이 유독 주변 4개국에 대해 강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캄보디아와 중국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베트남인이 중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승리자/희생자(Victor/Victim)의 틀”(Soh 2003)을 통해 역사를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적 틀 안에서 베트남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베트남인은 이웃 4개국과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힘의 균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승리자이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희생자라는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순응하는 약자(라오스), 저항하는 약자(캄보디아), 갈등하는 경쟁자(태국), 순응시키려는 강자(중국)라는 위계적으로 배열된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에 따라 라오스의 베트남 의존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중국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고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이웃국가와 다자적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계적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강자 즉 “중국의 위협(China threat)”(Dinh Thi Hien Luong 2005: 64)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경쟁자 즉 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약자 즉 캄보디아와 라오스에게 영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베트남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적 관계의 구축은 이러한 항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 회원권 획득은 베트남에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의사결정구조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Kraft 2000; Ralf 2005). 베트남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세안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회원국들이 친중국적 태도를 보이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뭉치자고 설득하긴 힘들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홀로 나선 쥐 꼴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으로서는 차라리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웃 국가와 경쟁하거나 우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편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베트남 정부의 친중파가 (비록 아직도 소수파이지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서 친중파로 알려진 ‘팜 자 키엠(Pham Gia Khiem)’이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 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베트남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아세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중국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외부의 힘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베트남 학자와 외교관의 다수는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Dinh Thi Hien Luong 2005 참조). “아세안이 중국에

붙는 것(bandwagoning)을 견제할 수 있는 일본”(Dinh Thi Hien Luong 2005: 64)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많은 베트남 학자들은 일본의 학자들을 따라 아시아 지역주의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부정합성(non-conformity), 개방성(openness), 포괄성(inclusiveness)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Camilleri 2003; Dinh Thi Hien Luong 2005: 60). 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동아시아공동체가 결국 아세안+3가 아닌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중심으로 인도, 뉴질랜드, 호주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받아들여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참조).

하지만 베트남이 당분간은 동아시아공동체 결성 논의에서 일본의 견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의 아세안+3 모임이 얼마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구체화 되더라도 적극 나서서 중국의 의사에 반기를 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반감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태국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거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와의 관계가 소원해 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⁹⁾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베트남의 시각은 베트남이 지역 내 인근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계적 이미지와 전략적 목표에 기초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과정에서 베

9)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이 지역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3가지 항구적 목표(즉 중국의 영향력 견제, 태국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캄보디아-라오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이 지역 내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며 중국의 독주를 막아주는 것이다. 차선의 시나리오는 베트남이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이웃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적의 시나리오는 물론 아세안이 중국의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트남의 의사결정은 “(베트남의 눈에) 점점 더 거대해지고 두려워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제약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지역협력, 베트남의 이웃국가에 대한 시각, 위계적 이미지, 승리자/희생자의 틀

참고문헌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과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한우. 2002. “베트남의 체제변화와 21세기 발전 방향: 제 9차 당 대회 결과분석.” 『국제지역연구』 5(4).
- 조흥국. 2004. “태국의 내부 식민주의와 이산(Isan)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오명석 편.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pp. 195-233. 오름.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황인원. 2006. “동남아 지역주의의 확대에 대한 ASEAN의 인식과 전략.” 한국동남아연구소-제주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29-45.
- Amer, Ramses. 1995 “Vietnam and its neighbors: The border dispute dimens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7(3): 300-312.
- _____. 1999 “Conflict management and constructive engagement in ASEAN's expansion.” *Third World Quarterly* 20(5): 1031-1049.
- Amer, Ramses and Nguyen Hong Thao. 2005 “Managing Vietnam's border disputes.” *International Studies(ngbien cuu quocte)* 17: 26-37.

- Birgersson, Susanne. 1997. "The evolution of Soviet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23(4): 212-234.
- Camilleri, Joseph(ed.). 2003. *Regionalism in the New Asia-Pacific Order: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sia-Pacific Region*. 2. Camberley, UK: Edward Edgar Pub.
- Chambers, Michael R. 2005. "The Chinese and the Thais are Brothers: the evolution of the Sino-Thai friendship."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45): 599-629.
- Denoon, David B. H. and Steven J. Brams. 1997. "Fair Division: A new approach to the Spratly Islands Controversy." *International Negotiation* 2(2): 303-329.
- Dinh Thi Hien Luong. 2005. "The rise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roles of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Studies(ngghien cuu quoc te)* 17: 59-70.
- Dosch, Jorn and Oliver Hensengerth. 2005. "Sub-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Mekong Basin."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2): 263-285.
- Hall, Gwendolyn Miello. 1991. *African in Colonial Louisiana: the Foundation of Afro-Creole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Baton Rouge: Louisiana University Press.
- Kraft, Herman Joseph S. 2000. "ASEAN and intra-ASEAN relations: weathering the storm?" *The Pacific Review* 13(3): 453-472.
- Kung, Hans. 1999. "A global ethnic in world politics: the middle way between 'real politics' and 'ideal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13(1): 5-19.
- Lee, Ching Kwan. 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Two worlds of factory wome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guyen Hao Hung. 2003. "Nhưng nhan to thuan loi va kho khan trong quan he dac biet Viet Nam-Loa hien nay(베트남과 라오스의 특별한 관계 속의 이점과 난관의 요인들)."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3: 25-28.
- Nguyen Hoang Giap. 2005. "Tac dong cua su phat trien quan he Trung Quoc-Asean doi voi khu vuc chau A -Thai Binh Duong(중국-아세안의 발전적 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29-34.
- Nguyen Hong Quang. 2003. "Doi song cong dong nguoi Viet Nam tai tinh Sakon Nakhon-Thai Lan(태국 사콘 나콘 지방 베트남인의 공동 생활)."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3: 60-66.
- Nguyen Khac Vien and Huu Ngoc(eds.). 1998. *From Saigon to Ho Chi Minh City: A Path of 300 Years*. Ho Chi Minh City: The Gioi Publishers.
- Nguyen Sy Tuan. 2003. "Hop tac giao duc va khoa hoc Viet Nam-Loa vi muc tieu phat trien nguon nhan luc (인적자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베트남-라오스의 교육 및 과학 분야의 협력)."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3: 11-18.
- Nguyen Vu Tung. 2002. "Vietnam-ASEAN co-operation after the Cold War and the continued search for a theoretical framework."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 Strategic Affairs* 24(1): 106-120.
- Peteet, Julie. 2005. "Words as interventions: naming in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Third World Quarterly* 26(1): 153-172.
- Pham Duc Thanh. 2003. "Quan he dac biet Vietnam-Lao(베트남-라오스의 특별한 관계)."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 연구) 3: 3-10.
- Ralf, Emmers. 2004. "Regional hegemonies and the exercise of power in Southeast Asia: A study of Indonesia and Vietnam." Conference

- paper of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pp. 1-18.
- _____. 2005. "The Indochinese enlargement of ASEAN: security expectations and outcom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1): 71-88.
- Sears, David O., Leonie Huddy, and Robert Jervis(eds.). 2003.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Sheldon. 1994. "Vietnam's security: Between China and ASEAN."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20(4): 187-204.
- Soh, Chunghee Sarah. 2003. "Politics of the victim/victor complex: Interpreting South Korea's national furor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American Asian Review* 21(4): 145-178.
- Stanley, Bruce. 1995. "Hanoi looks to the US in keeping China at bay." *Christian Science Monitor* 87: 153.
- Trinh Dien Thin. 2005. "Viet kieu in Thailand in Thai-Vietnamese relationship." Institute of Asian Studies of Chulalongkorn University.
- Tran Khanh. 2005. "Tac dong cua su gia tang hop tac ASEAN-Trung Quoc den quan he Viet-Trung thoi ky hau chien tranh lanh(아세안-중국의 협력증대와 탈냉전 시대의 베-중 관계)."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1: 3-12.
- Vu Cong Quy. 2003. "Quan he hop tac Viet Nam-Lao tu 1977 den 2003(1977년부터 2003년까지의 베트남-라오스의 협력 관계)." *Nghien Cuu Dong Nam A(동남아연구)* 3: 19-24.
- Winichakul, Thongchai. 1994.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bstract

Vietnamese Historical Perspectives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Chae, Suh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ese historical perspectives, images, and public discourses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Vietnamese governmental decision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ollowing four themes.

First, based upon the interviews with Vietnamese diplomats, scholars, and governmental officers who are specialized in neighbor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typical images, emotions, perspectives that Vietnamese have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peopl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Vietnamese perspectives on fou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Laos, Cambodia, Thailand, and China.

Second, this study examines how Vietnamese explain the historical grounds of their perspectives, images, and emotions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people. It is explored what kinds of historical facts and events are specifically remembered and constructed to justify their explanations.

Thir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ir interpretations on regional

histories or historical memories on neighboring countries are associated with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that Vietnam maintains.

Finally, this study explores the implication of Vietnamese (differentiated and hierarchical) historical perspectives on neighboring countries in understanding Vietnamese government's decision making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processe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Vietnamese has distinct consciousness on the power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four countries. Vietnamese have a strong belief that they are victors to some countries and victims to other countries. In such a victor/victim framework, Vietnamese describe Lao as a malleable and weak neighbor, Cambodian as a resistant and weak neighbor, Thai as a conflicting and competing neighbor, and Chinese as a dominating and powerful neighbor. This study argues that the hierarchical images on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Vietnamese have make a conscious and unconscious influence on Vietnames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processes.

Keyword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Vietnamese historical perspectives on neighboring countries, Hierarchical images, Victor/victim framework